

IBKS Spot Comment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02) 6915-5659

hwle1125@ibks.com

[자동차/2차전지]

GTC,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진화 선언

GTC 2026, 현대차와의 협력 발표

이번 GTC 2026에서 차량 관련 핵심 내용은 NVIDIA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단순히 반도체 공급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내용은 두가지로 첫째, Uber와의 로보택시 협력 확대다. NVIDIA는 Hyperion 기반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로보택시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BYD, Geely, Isuzu, Nissan 등도 Hyperion 기반 LV4 차량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자율주행용 플랫폼 사업자로의 포부를 발표했다. 27년 상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28년까지 글로벌 28개 시장에서 우버와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둘째, 현대차그룹은 LV2+부터 LV4 로보택시(Motional)까지 포괄하는 자율주행 체계를 NVIDIA와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대차그룹의 실제 차량 데이터와 NVIDIA의 AI 및 차량 플랫폼을 결합해 자율주행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NVIDIA, 자율주행 생태계 사업자로 포지셔닝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NVIDIA의 전략은 비교적 명확하다. Hyperion은 차량용 기본 플랫폼, Alpamayo는 자율주행 성능 고도화를 위한 AI 모델 레이어, 완성차 업체 및 로보택시 사업자와의 협력은 이를 실제 서비스와 양산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상용화 채널에 해당한다. 즉 NVIDIA는 칩 공급사를 넘어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검증, 배포를 포괄하는 생태계 사업자로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있다. NVIDIA의 Drive Hyperion은 14개 카메라, 9개 레이더, 1개 라이다, 12개 초음파 센서와 2개의 Drive AGX Thor 컴퓨터가 포함된 멀티 모달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의 공통 플랫폼에 가깝다. 또한 1월에 공개한 VLA 모델인 Alpamayo 1.0에 이어, 이번 GTC에서는 Alpamayo 1.5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개념 정리 및 자율주행 경쟁력

Hyperion, Alpamayo, 현대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Hyperion은 센서, 중앙 컴퓨팅, 안전 체계를 묶은 차량 플랫폼이고, Alpamayo는 자율주행 판단 성능을 높이기 위한 AI 모델 개발 도구에 가깝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시 본질적으로는 FSD와 유사한 자율주행 판단 소프트웨어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대차가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Hyperion 위에 탑재되는 현대차의 주행 두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NVIDIA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Hyperion 기반 개발 체계를 활용해 자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Fleet data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향후 경쟁력의 핵심은 플랫폼 자체보다도, 누가 더 많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 검증, 배포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표 1. GTC 2026 차량 관련 주요 발표 내용

구분	발표 내용	의미
Uber 로보택시	- Uber와 협력, Hyperion-ready 차량 및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로보택시 확장추진 - 27년 LA-샌프란시스코부터 28년까지 글로벌 28개 시장으로 확대 계획	단순 칩 공급을 넘어 로보택시 상용화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
Hyperion 채택 확대	- BYD, Geely, Isuzu, Nissan, DRIVE Hyperion 기반 레벨4 프로그램 합류	전용 플랫폼이 아닌, 글로벌 공통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으로 확대
현대차그룹 협력 확대	- 현대차그룹의 SDV 역량-주행데이터를 NVIDIA의 AI-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결합 - 적용 범위는 기존 양산된 L2+부터 Motional의 L4 로보택시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개발 체계 강화
Hyperion	- 레벨2+~레벨4까지 대응 가능한 양산형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 및 참조 아키텍처 - 고성능 중앙집중식 컴퓨팅과 검증된 멀티모달 센서 제품군 통합	단순 반도체 판매가 아닌 차량 플랫폼으로 표준화
멀티센서 구조	- Hyperion 설명에는 카메라 레이더-라이다-초음파 등 멀티모달 센서 제품군 포함 - BYD·Geely·Isuzu·Nissan의 L4 차량 프로그램 적용	Tesla와 달리 다중 센서 기반 보수적 구조 채택
Alpamayo-데이터팩토리 연계	- Physical AI Data Factory Blueprint 발표 - 이를 통해 Alpamayo를 학습 평가하고 Uber의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	차량 플랫폼(Hyperion) + AI 모델(Alpamayo) + 데이터 학습 체계

자료: Nvidia, IBK투자증권

표 2. Hyperion, Alpamayo, Tesla FSD, 현대차 자율주행 시스템 비교

구분	성격	세부 내용	어디에 해당하는가
Hyperion	차량 플랫폼 / 참조 아키텍처	- 센서, 중앙 컴퓨팅, 안전 체계, 소프트웨어 기반을 묶어 자율주행을 개발·검증·배포할 수 있는 차량용 기준 플랫폼 - 레벨2+~레벨4용 양산형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	하드웨어-센서-플랫폼
Alpamayo	AI 모델 / 개발 도구 생태계	- 공개형 AI 모델, 시뮬레이션 도구, 데이터셋 묶음 - 자율주행 성능 고도화에 사용	AI 모델-학습
Tesla FSD	상품화된 주행 기능 / 소프트웨어 패키지	- 경로 탐색, 차선 변경, 회전, 주차 등을 수행하는 기능 - 단, 기능이 차량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	주행 기능-소프트웨어 상품
현대차 자체 자율주행	내재화된 주행 판단 소프트웨어	- 현대차그룹과 NVIDIA 발표문은 fleet data와 SDV 역량을 활용해 data-driven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설명 - 즉,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자체 주행 판단 소프트웨어 확보	Hyperion위에 올라가는 주행 두뇌

자료: Nvidia,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